성령강림 대축일 강론(2019년 6월 9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어떤 왕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변하게 해 달라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진짜로 다 금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쓰다듬어주는 강아지도, 자신의 아내도, 자식들도 손을 대니까 다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손을 대니까 다 금으로 변해버려서 결국은 굶어 죽었답니다. 주변이 다 금으로 가득차도 그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원을 빌어도 잘 빌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등산을 갔습니다. 산을 한참 올라가는데, 일행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 걷고 있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는데, 어떤 작은 연못에 이르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일단 목을 축이고 있는데, 글쎄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더니 묻는 겁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소원을 하나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웬 대박입니까! 한 참을 생각합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하나… 집안에 큰 걱정거리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자식들도 다 잘 돼서 시집 장가 다 갔고, 무슨 소원을 빌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른살 젊은 여인과 살게 해주십시오. 동갑내 기 부인이 집에 멀쩡히 있는데도 새 장가를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60대 였던 그 형제님이 글쎄 90대 노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소원을 빌어도 잘 빌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이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시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래도 서로 정을 나누고,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슬픔과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생각처럼 늘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늘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항상 주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희망을 갖고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만 부리면, 더 이상 은총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은총을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나누라고 주십니다.

 오늘 성령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모든 이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지만, 이 성령을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성령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성령을 받을지 말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성령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옵니다. 개인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혼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거기에 성령이 오지는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일 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늘 함께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흩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일 줄 모른다는 것은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섞일 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은 일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일치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께서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통해 자신이 더 특별해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대신 악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삶이 늘 기쁘고 신이 나고, 평화가 가득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삶이 늘 우울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미소와 웃음이 가득한 사람과 늘 불평과 불만으로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늘 있죠. 성령이 함께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하고, 두려움에 싸여 어두운 방안에 꼭꼭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어두운 방안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 예수를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 스승님은 아마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슴 뜨겁게 인생의 사는 맛을 느끼게 해 주셨던 바로 그 분이, 세상을 구원할거라고 믿었던 그 분이, 무참히 허무하게 아무 힘없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허탈하고, 절망스럽고, 사는게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죄의식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스승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정하고, 도망쳐 나왔으니, 그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꽉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아오셔서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이 평화의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목격하고, 평화를 빌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은 이제는 더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더이상 절망과 슬픔은 없습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찹니다. 닫아 두었던 문을 박차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기쁨과 환희로, 새로운 희망과 가득한 행복을 담고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면서, 신명 나게, 신바람 나게 삽니다. 가진 것도 없고, 여전히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는 박해자들은 밖에 눈을 번뜩이면서 지켜보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신나게 삽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웃음이 가득 합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명나게 사는 그런 인생살이, 신바람나는 그 인생살이가 바로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고, 성령이 함께 하는 삶입니다. 과거의 절망과 슬픔, 상처 모두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단지 그 옛날 제자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신명나게,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초대가 바로 성령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현존 속에서 늘 기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이여 오소서! 아멘!